

흔히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본인 스스로 못 깨달아서 그렇지 꼭 필요한 사람이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든지 둘 중의 하나다(롬6:13의 악한 일에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의의 병기, 그들이 참된 씨앗이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 받은 것이다. 참된 씨앗의 축복으로 시작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인생이 본래 인생의 모습이다(창1:27-28).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가나안을 보내면서 하신 약속도 이것이다(신33:29).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높은 것을 낮을 것이라고 했다.

주님은 마지막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행1:8).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 노예였다. 양치는 목동이었다. 살인자였고, 어부였고, 핍박자였다.

우리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고전1:26-29).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바꾼 것이다(참된 씨앗).

그래서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씨앗이 있다. 틀린(가짜) 씨앗과 올바른(참된) 씨앗이 있다.

1. 틀린 씨앗, 가짜 씨앗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가고,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가게 하면 안 된다.

1) 나의 열심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없다(창3장)

뭐든지 열심히 한다. 공부,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일단 내 열심으로만 하면 지치고 스트레스가 온다. 그리고 뭔가 성취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5-6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일 뿐이다.

헤롯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다가 멸망했다(행12:22-13).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되면 좌절, 분노, 절망에 빠지게 된다. 우울증, 정신문제도 그래서 온다.

2) 육신과 세상 기준으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의 네피림 시대의 성공이 그것이다(창6장).

사람들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는 것이 전쟁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나 늘 불안하다. 그래서 각종의 악물 중독,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다.

3) 완전히 악신의 힘을 입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의 바벨탑 시대의 성공이 그것이다(창11장)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이 제안을 했다(마4:9). 그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고 했다(렘6:12)

이 시대의 뉴에이지 운동이 이것이다. 결국은 사단 숭배하면서 문화, 예술(영화, 음악등)을 짝 장악한 것이다.

프리메이슨 운동, 각종 종교 단체에서 하는 기운동, 명상운동도 마찬가지다.

어느날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적 문제들이 온다.

2. 참된 씨앗,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씨앗은 누구일까? 우리와 우리 램넛들이 가야 하는 길이다.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이 자녀요 램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꼭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축복이다.

1)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질 때 참된 씨앗의 축복이 시작된다(영적 씨앗).

① 세상에서도(군대, 직장, 정부) 씨앗의 특징은 비밀을 알고 취급하는 자가 씨앗이다.

골2:2-3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했다.

그냥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다. 깨달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뉴톤이 깨달은 중력의 법칙)

②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가? 도대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키다.

인생과 세상이 당하는 문제가 단순히 열심히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이다(창3:15, 요일3:8)

③ 내가 겪는 실패, 고통, 약점에서 영적인 것을 보라. 사단이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고, 축복을 막는다.

단순한 상처 아니다. 사단이 역사하니 평생의 문제가 된다. 열등감, 우울증, 분노와 적개심, 해결이 안 된다.

단순한 질병이 아닐 수 있다. 고질적 습관(중독)을 만들기도 한다. 작은 실패를 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내 율법의 의로, 내 열심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2)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참된 씨앗의 증거가 시작된다(기능 씨앗).

8절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① 나(내 지식, 능력, 경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은 일을 해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해보라.

뭐가 되어져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고전15:10). 오직 그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오직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역사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역사하신다.

(요셉의 노예 생활, 다윗의 물매돌).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능 씨앗이다.

②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체험하는 것이다.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 시간이 오직의 시간이다.

램넛 7명을 비롯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시간을 통과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라.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나의 눈물도, 고통도, 전부 오직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씨앗의 결론이 시작된다(문화 씨앗, 전도 씨앗).

① 늘 내가 받고 깨닫고 누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모든 기회를 전도로 해석하고, 전도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다.

② 12절에 바울은 그 일에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알고 살았다. 13절에 위에서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들이 전도 제자이다. 문화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다.

결론-단 한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 참된 성공자, 참된 씨앗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내 문제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며 가라. 나의 평생 증인으로, 전도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가라. 참된 씨앗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